

Open Doors

2019. 08. Vol. 208

박해와 선교 현장

인도네시아 *Indonesia*



오픈도어 8월 캠페인

박해받는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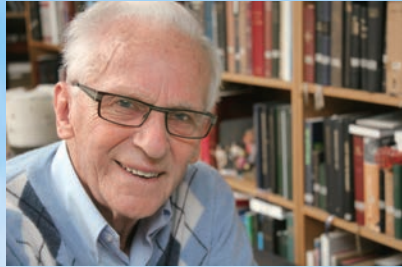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주의 기도(8)

브라더 앤드류(오픈도어 설립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마 6:13).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한바퀴를 돌아 출발점이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왔다. 주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다.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바울의 광범위한 기도는 이렇게 끝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엡 3:20-21).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시 2:8)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그렇다, 우리는 열방을 구해야 하며 땅 끝까지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은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린다. 고난받는 교회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구해주기를 기다린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 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래사를 삼가 들겠느냐”(사 42:22-23)라고 우리를 깨우치신다. 우리 중 누가 들겠는가?

당신이 들겠는가?

나라들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기 위하여, 운명론을 떨쳐버리고 한걸음 앞으로 나아와 몸으로 막아서겠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될 의사가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끄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사 49:8-9)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이고 소명이며, 이것이 또한 우리 삶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이다. 우리 모두 함께 이것을 향해 나아가자!

CONTENTS

- 04 북한 선교 현장
나의 출애굽기 XIV
- 06 박해와 선교 현장
인도네시아(Indonesia)
- 10 박해받는 여성 캠페인: 스토리
북아프리카 무슬림 여성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 14 2019년 박해 지도
- 16 박해받는 여성 캠페인: 사역
여성사역은 어떻게 회복하고 치유하는가?
- 21 오픈도어 박해 퍼즐
- 22 2019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 국내 참가자 모집
- 23 여성 사역 캠페인



04



06



10



16

OpenDoors 2019년 08월호 | 통권 208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이동현, 배춘섭, 김윤태 목사
 사무총장 _이종만 목사
 정보/행정/재정 _오현정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_이종만 목사

〈후 원 계 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북한 캠페인: KB 국민은행 029301-04-16918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의 출애굽기 XIV

드보라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동생이 집결소에 면회를 왔다. 동생은 내가 탈북하기 전에 군대에 갔던지라 이번 만남이 거진 10년만이었다.

동생은 나를 만나자마자 욕을 한사발 했다.

“당과 수령을 배반하고 부모형제를 배반했으면 잘 살아야지 이게 무슨 꼴이냐!”

“동생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는 동생 볼 면목이 없어서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 모습을 보던 간부는 민망했던지

“야, 그만 욕해라 안그래도 불쌍한데 뭐 그리 심하게 대하나” 하면서 말리다가 자리를 피했다.

그 사람이 자리를 피하자 동생은 그제서야 울면서 “아! 누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했다. 간수들에게 혹시 잘못 보일까봐 반가운 마음을 억누르고 그렇게 욕을 했던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동생은 결혼하고 가정을 잘 꾸리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었는지 애써보겠다고 했다. 그 뒤로도 동생은 자주 면회를 왔고 여기저기 돈도 빌려서 나를 위해 뒷공작을 해주었다. 나의 출소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즈음 동생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누나, 내가 꺼내줄 수 있는데 꺼내주면 중국 갈래지?”

“아냐, 난 안 간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다”

“약속한 거지? 알았어 그러면 누나를 꺼내줄게.”

나는 동생을 만난 지 2달만에 출소할 수 있었다.

동생과 약속한 대로 어떻게 해서든 북에서 살아보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나왔다. 그런데 나와 보니 하루도 못 살 것 같았다. 중국에서는 비록 잘 살지는 못해도 하고 싶은 말은 마음대로 했는데 여기는 말도 맘대로 못하고 통행증 없으면 어디 가지도 못했다. 숨막히는 답답함이 나를 짓눌러왔다. 이전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북한은 말 그대로 감옥 그 자체였다. 온 사방의 감시가 느껴졌다. 숨이 막혔다.

나는 언니도 찾고 북에 두고 나갔던 아들 딸도 찾아야 했다. 그러나 돈은 1원도 없고 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사람을 찾아 중국 가면 돈을 보내겠으니 내 아들 딸 좀 찾아주오... 하고 주소를 쥐어주고 부탁을 했다. 돌아온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시아머니와 큰아버지 모두 다 죽었고 우리 아이들은 찾지 못했고, 꽃제비가 되었다는 소식만 들었다고 했다.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북에서



〈북한 장마당의 한 꽃제비 (AFP_자료사진)〉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 느낌이었다. 그러면서 중국에 놓고 온 갓난아이 생각이 간절했다.

며칠 이렇게 마음을 잡지 못하다가 결심을 했다. 무작정 강을 건너기로 한 것이다. 그 전에 장마당 가서 쥐약을 사왔다. 혹시 붙잡히면 다시 감옥생활은 도저히 할 수 없겠다 싶어서 잡히면 먹고 죽을 생각으로 사온 것이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강을 건너러 갔다. 깊은 밤, 손에 쥐약을 쥐고 강가에 서서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문구를 외우고 기도 아닌 기도를 했다.

“하나님, 건너게 해주시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용어는 북한식 용어지만 사실상의 헌신기도였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내가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고, 그저 강을 안전하게 건너고 싶다는 바람만 가득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다. 군인을 포섭하지도 않았고 그냥 무작정 강을 건넜는데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았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탈북을 한 것이다.

강은 건넜지만 정신이 얼떨떨했다. 내가 진짜 중국에 와 있는 것인지...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연락을 하기 위해서 강가의 불빛을 따라 어느 집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한껏 사정을 해서 전화를 빌렸다. 중국의 애아빠한테 전화를 하기 위해서다.

애가 막 뉘이 지났을 때 북송을 당했는데 그 아이는 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내 생각에 애가 잘못될 줄 알았다. 탈북 여성과 결혼한 많은 중국 남자들이 엄마가 북송되거나 도망가면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이다. 이 남자도 워낙 무딘 사람이라 아이를 잘 돌보았을지 확신이 없었다.

전화기의 신호가 몇 번 울리고... 다행히 반대편에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를 통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이다. 나는 다짜고짜 아이는 잘 있는지부터 물어봤다. 버럭대던 남편은 아이는 잘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다가 상황이 파악이 되었는지 대뜸 전화기로 욕이 한바가지가 날아왔다. 이 여편네가 어디 갔다가 인제 연락하냐며 나를 막 다그쳤다.

사실 남편 입장에서 애를 옆집에 맡겨놓고 도망갔다가 몇개월만에 연락이 왔으니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처음 잡혀서 중국 감옥에 있을 때 곧 석방될 중국 죄수들에게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사정 설명과 아기를 잘 돌보아 달라고 연락을 부탁했는데 제대로 연락이 안되었던 것 같다.

나는 전화로는 모든 이야기를 설명할 수 없어서 나 잡혀서 북송 되었다가 강 건너왔다고만 설명하고 나 좀 데리러 오라고 했다. 그렇게 나는 다시 남편을 만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응답이요 은혜라는 말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는 못하고 그저 돌아온 것에 기뻐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생각지도 못한 인도하심으로 나를 이끄셨다. <계속>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인도네시아

Indonesia

인구: 266,795,000명

기독교 인구: 32,379,000명(12.1%)

박해정도: 2019 세계 박해 보고서 30위

수도: 자카르타(Jakarta)

주 박해 요인: 이슬람 억압, 독재정권, 종교 민족주의, 민족간 갈등

보고기간: 2017년 11월 1일 - 2018년 10월 31일

2019 세계기독교박해지수 조사에서 인도네시아는 62점을 받으며 전체 조사대상국 중 30위에 들었다. 이는 작년 조사보다 6점 상승한 수치이다.

1. 주된 박해의 양상

이슬람의 억압: 박해는 이슬람 근본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슬람 사원과 대중 매체에서 그들의 종교적 가르침을 통해 기독교인들과 다른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데서 비롯된다. 복지정의당과 같은 몇몇 보수적인 이슬람 정당들은 이슬람 국가

건설을 위해 그들의 의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권자들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대표들은 이슬람 법률인 샤리아(Sharia)에 근거를 두고 교육 분야를 포함한 정책의 입안 및 통과를 주도한다.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은 이슬람 수호 전선(FPI)와 같은 급진적인 이슬람 단체들이다. 그들은 거리 시위를 위해 수십만 명을 동원할 수 있고, 일부 정치인과 정당들은 선거에서 힘을 얻기 위해 이들을 동원하기도 한다. 국가 차원에서 종교적 소수자들의 처우와 상황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 편이나, 정부 자체는 국가 차원의 박해의 동력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 차원의 정책 실행과 급진 이슬람 단체와의 대립에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한다.

종교 민족주의로 인한 박해: 힌두교 개종자들은 그들

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압력을 받기는 하나, 대부분의 압력은 그들 자신의 가족, 이웃, 친구, 공동체로부터 오며, 그 내용은 개종 전 가졌던 힌두교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개종자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그들이 경험하는 핍박의 정도와 내용이 달라진다.

2. 박해의 결과

외국인 기독교 공동체: 외국인 기독교인들은 강제적 고립을 경험하지 않으므로 이 범주는 별도로 점수가 매겨지지 않았다.

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과 관련된 교회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교회들은 교회의 성장과 함께 감시와 박해를 경험한다. 파프아(Papua), 서부 누사 테γκα라(East Nusa Tenggara), 멘타와이(Mentawai)와 같은 가난한 지역의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는 이슬람의 선교 노력이 대담해지면서,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공격적인 이슬람 전도의 도전을 받고 있다.

개종한 기독교인: 기독교 개종자들은 주로 이슬람교 출신이며 이들이 가장 심한 박해에 직면한다. 그들은 면밀하게 감시되고, 핍박을 피하기 위해 주변 사회와 융화되려고 노력한다. 만약 그들의 개종이 발각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할 것을 요구 당한다. 마찬가지로 힌두교가 우세한 발리 섬에서도 힌두교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면 주로 가족, 친구, 지역 사회와 당국으로부터 심한 압력을 받는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의 주요 신도들은 침례교, 복음주의 교회, 오순절 교회 신도들이다. 그들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열렬히 전파함으로써 눈에 띄는데, 이것은 그들을 지역사회와 급진 이슬람 집단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교회 건물을 짓거나 개조하는 것으로 인해 시달리는 어려움들도 있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이슬람 단체와 이웃들은 실제 건축 과정을 방해하려고 시도한다(가톨릭 교회도 건물 건축과 개조에 관한 한 똑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슬람으로부터 개종한 많은 개종자들은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경험한다. 그러나 박해의 강도는 다양하며 대부분 고립, 언어폭력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개종자 중 극히 일부만이 기독교 신앙으로 인한 신체적 폭력을 겪는다. 박해의 정도 또한 발생 지역에 따라 좌우된다. 서부 자바(West Java)나 아체(Aceh) 지역과 같은 갈등 지역에서는, 특히 급진 이슬람 집단의 세력이 강하고 사회와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오순절 교회들이 그러하듯이 교회가 복음 전도에 열성적인 모습이 모이면, 그들은 곧 급진적인 이슬람 단체들과 갈등을 겪는다. 전형적으로, 비전통적 교회 단





체들은 교회 건축 허가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법적 승소 등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이행해도 지방 당국은 이를 외면한다. 가톨릭 교회들도 건축 허가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대체로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최근 몇 년 동안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악화되어 왔다.

3. 구체적 박해의 예시

- 2018년 5월 13일 동부 자바 주 (East Java)의 수라바야(Surabaya)의 교회 3곳이 자살 폭탄 테러범의 공격을 받아 기독교인 18명이 사망하였으며, 여러 사람이 부상당했다.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9살과 12살 소녀 2명을 포함한 일가족 전체가 함께 테러를 자행하였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공격은 2005년 발리 폭탄 테러 이후 최대 규모였으며 2000년 이후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 2018년 5월 땅그랑(Tangerang)의 지방법원은 택시

기사와 복음을 나눈 목사와 무슬림 개종자를 “종교에 근거해 개인, 단체, 사회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의도적인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 2017년 5월 9일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카르타 전 주지사 아욱(Ahok)은 2018년 내내 수감되었다.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사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건은 2016년 9월 전 주지사의 연설 도중 발생하였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가족들에 의해 감금되어 그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긴 일들이 여러 지역들로부터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은 몇 주 동안, 격리, 감금되었다가 개종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가택에서 추방되었다.
- 기독교인의 아이들 또한 배척과 언어 폭력에 직면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람교도 가정들이 자녀들이 기독교 친구들과 노는 것을 금한다. 이들은 이교도라고 불리며 이슬람 종교 교사들에게 조롱당하기도 하고, 학교 교실 뒷줄에 앉도록 강요 당하기도 한다.

를 다르게 해석하는데, 이러한 방해를 단절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의 확산이 차단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종교는 서구 사회로부터 도입되었다는 것이라는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에 퍼져있는 광범위한 인식 때문이다.

IS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전선과 영토 손실의 보상을 위해 IS는 스스로 자신을 개혁하며 사이버와 물리적 공간, 중동, 아프리카, 코카서스, 아시아에서 세계적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리아와 여러 다수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공식적으로는 1,200명이다.

미래 전망과 오픈도어의 참여는?

오픈도어는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테러 위험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매년 1500명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대상으로 오픈도어 제자훈련인 “폭풍 가운데 굳게 서기”(Standing Strong Through the Storm: SSTS) 세미나를 개최하며 핍박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을 활발하게 가르치고 있다.

수라바야(Surabaya) 지역의 성령강림교회(the Pentecos-



tal Church) 요나단 목사는 오픈도어에 이렇게 전했다. “우리는 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만 합니다. 사건들로 인해 예배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두려움에 질 수는 없습니다.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상황은 위험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만이 저희에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분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하진 못해도 그분은 항상 선하십니다.”

오픈도어는 또한 “이슬람 이해 세미나”라 불리는 또 다른 훈련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자들이 이슬람의 근본과 전략을 바로 이해해서 무슬림을 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인식해서, 결국은 그들에 대한 복음 사명을 품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브라더 앤드류가 말했듯이, “만약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고 가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에게 칼을 들고 달려들 것이다.”

사건과 인터뷰 2

알바로: “언제쯤 오른손이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2016년 11월 13일, 사마린다 교회 폭탄의 어린이 희생자 중 한명인 다섯 살 알바로는 2018년 2월 1일 쿠알라 룸푸르에서 전문 치료를 시작했다. 10개월 후인 2018년 12월, 의사는 알바로에 퇴원을 허락했다. 오른손 집게 손가락을 굳게 뻗을 수 없게 된 알바로는 어느 날 엄마에게 물었다. “내 오른손과 얼굴은 언제쯤 왼쪽처럼 정상으로 돌아 올까요?” 의사들은 아직 미완성 상태에서 검사와 계획을 통해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3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테러가 발생한지 2년 9개월이 지났지만 알바로의 치료를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하지만 그는 완전한 치료를 위한 용기와 기쁨 갈망을 계속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여행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그를 지지하려고 한다. (지난 소식지 4월호에 소개된 인도네시아 사건 업데이트)



인도네시아 테러리스트 움직임에 대한 이해

인도네시아에서 테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테러는 이슬람 근본주의의 부산물이다. 어떤 이들은 근본주의 용어를 이슬람 기술 전파에 대한 갈망과 동일시하고 전 세계

에 걸쳐 칼리프로 알려진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우디 아라비아의 거대한 자금 지원과 함께 이슬람 극단주의의 세계적인 움직임은 전체 주의 정권 몰락 후 혁명기간 동안 성장하면서 꽃을 피웠다.

인도네시아는 오랜 동안 온건주의 이슬람의 옹호자였는데 무엇이 이 상황을 바꾸었는가?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ICG)은 인도네시아의 왕자와 아랍 성직자의 지도자들을 그러한 연결의 강력한 요인으로 견고한 혐의 관계를 강조한다. 그 관계로 인해 인도네시아 다수의 무슬림들 사이에 온건주의 성향의 이슬람 문화가 강성으로 변화되었다.

왜 기독교인들은 근본주의 무슬림 단체의 공격 대상이 되는가?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의 확산에 대한 두려움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종교 단체 사람들과 이슬람 안에서 평화 의미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중동(걸프 포함) 후원: 우리은행 1005-701-884976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박해 받는 여성 캠페인 스토리

스토리 1

북아프리카 무슬림 여성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네가 기독교로 개종한다면 너는 가문에 먹칠을 하는 거야!”

“만약 네가 무슬림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다면 너는 네 아버지와 형제 그리고 가족 전체에 불명예를 안겨다 주는 거야! 너는 가족의 뿌리를 떠났기 때문이지. 그것은 너의 조상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지. 너는 네 뿌리와 가족을 거부했어. 너는 네 가족에게 수치와 피해를 안겨다 주었어.”

이것은 당신이 무슬림 가족에서 태어나 기독교로 개종할 때에 무슬림들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당신을 신앙심 없는 이방인이라고 부르며 가족에게 수치를 안겨다 주었다고 배척할 것이다.

아이자(Aizah)라고 불리는 한 여성은 북아프리카의 한 여성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고통 가운데 그녀의 신앙은 더욱 더 성장해나갔다.

“아마 저는 마을에서 예수를 믿는 단 한 명의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죠. 전도자에게서 처음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에 대한 농담 같은 것으로 받아 들였어요. 저는 비록 무슬림이었지만 그녀가 전해주는 그 복음이 매우 흥미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어 갔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아버지에게 먼저 크리스천이 된 것을

고백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너는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너의 엄마, 형제자매 모두를 잃게 될 것이고 아무도 너와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토요일에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셔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우 저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계셨고 저에게 상처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오는 딸에게 그녀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명예살인으로 그녀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다음날 급히 아이자는 집을 떠났다.

“가방에 필요한 것을 대충 집어넣고는 걸어서 도망쳐 나왔어요. 다른 크리스천의 집에 며칠 동안 묵었고 그 후 2년 동안은 저를 주님께로 인도해준 크리스천 가족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현재 무엇이 가장 힘든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어느덧 숨겨왔던 고통에 미소가 사라지면서 두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모든 명절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은 무슬림 명절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척들을 만나지만 저는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그러한 명절을 즐기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티슈로 닦아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러한 명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명절에 어떻게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과 가족을 이루어서 희희낙락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진정한 크

리스천이라면 교회 성도들과 가족을 이루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가족애를 맛보고 웃음을 찾는 데는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어떠한 사역단체도 오픈도어만큼 여성신자들을 돕는 것을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오픈도어는 그들



을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적으로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사역인데 새로운 신자들을 발굴해 내고 전 세계에서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사역을 지탱해주며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대부분은 남성우월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

도어는 여성들에게 그들의 편이라고 말합니다. 여성들이 처한 입지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는 매우 유연성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사역자들은 우리는 단지 물질적으로 여러분의 사역을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하자며 우리를 찾아옵니다.”

스토리 2

기독교 여성 납치가 빈번한 이집트



이집트에서 매년 많은 크리스천 여자 아이들이 납치되고 있다. 그들의 거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지만 매기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매기(Maggie, 22)가 식료품점에서 나오는데 차 한 대가 멈춰 섰고 그녀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의 눈은 가려졌고 악물이 주입되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마을로부터 300km 떨어진 곳에 있

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들이 핸드폰을 빼앗아 간 것을 기억했다. 납치한 사람들은 그녀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매기에게 다시는 전화를 하지마.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녀의 핸드폰을 꺼버렸다. 매기는 방에 5일 동안 갇혀 있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만난 사람은 완전히



베일로 가려진 여자들뿐이었다. 그 여성들은 매기에게 음식을 주었지만 그녀는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베일로 가린 여성들은 그녀에게 말했다.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을 해치지 않고 당신을 보호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진짜 종교로 개종하기를 원합니다.”

매기는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사탄은 저에게 계속해서 속삭였어요. ‘아무도 널 찾으러 오지 않을 거야’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믿음은 점점 강해졌고, 그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확신을 더욱 커져 갔다. 지역 공동체가 매기의 납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다시는 사랑하는 매기를 만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

어떤 나라에서, 누군가가 납치되면 첫 번째 일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일이다. 매기의 목사님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는 경찰은 늘 실종된 크리스천 여자 아이들에 대해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 목사님이 경찰서에 갔을 때, 집에 돌아가라는 것과 자신들은 아는 바가 없다는 소리만 들었다.

그러나 목사님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용감하게 미디어의 관심을 구했고 그녀의 일을 대중들에게 온라인으로 알렸다. 그는 그녀를 위한 큰 집회를 열 것이

라고 경찰에게 통보했다. 마침내 경찰들은 압박을 받아 매기를 찾기 시작했다. 경찰이 그녀가 숨겨진 집을 찾아내 그녀를 경찰서로 데리고 왔다. 그러나 경찰은 매기를 곧바로 집으로 보내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그녀를 경찰서에 잡아두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너는 이제 21살이고 자유롭게 이슬람으로 개종할 수 있어.”

하지만 다시금 매기는 주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틀 후에 매기의 가족은 경찰서에서 그녀를 데려갈 수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매기에게 여기에서 울지도 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도 말라고 했다. 발설할 경우에는, 매기를 체포할 거라고 했다. 매기는 조용히 경찰서 밖으로 나올 때까지 눈물을 꼭 참았다고 말했다. 경찰서에서 벗어나서야 그녀는 울면서 아버지 품에 안겼다.

오픈도어 사역자는 매기와 그들의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해주었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이 강한 크리스천 여성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들이 엄마이든지 리더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그들 마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빛은 그들이 살고 있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빛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사역 캠페인 후원: 신한은행 100-027-219169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사건과 소식

네팔(Nepal)

네팔 당국은 2003년에 허가를 받아 세워진 바타스(Batase) 기도탑을 6월에 철거했다. 당국은 그것을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 누구도 사진이나 영상 촬영도 허락하지 않았다. 기독교의 상징물이 세워진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지역 삼림청 당국이 통보도 없이 철거한 것이다. 또한 당국은 한센미션(The Leprosy Mission)이라는 국제 NGO에 의해 운영되는 아나다 반(Ananda Ban) 병원을 급습했다. 병원이 무료 치료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조사하고 기독교로 개종시켜 왔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들은 30여 권의 성경책을 불에 태우기도 했다. 병원은 심지어 잘못된 소문의 확산으로 인해 수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신학 공부를 위해 모임을 갖던 세 명의 개신교 신자들은 3개월의 평균 임금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았다. 당국은 모임을 급습하고 참가자를 체포했다. 아제르바이잔은 법률로서 자녀와 젊은이들을 위해 특별한 모임을 개최하는 종교단체와 기타 단체를 1,500에서 2,000마나트에 달하는 벌금과 함께 처벌하고 있다. 법원은 세 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세 명의 개신교 신자들에게 3개월의 평균 임금 달하는 1500마나트의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고발된 세 사람의 기독교인들은 항소하지 않기로 하였다.

니제르(Niger)

유명 이슬람 지도자 이맘이 체포되면서 니제르의 제3의 도시인 마라디에서 폭력적인 무슬림 시위가 발생했다.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체포 소식이 확산되었고, 이슬람에 대한 불공평한 처우라고 주장하면서 젊은이들은 도로에 차벽을 설치하고 타이어를 불태웠다. 격분한 시위대는 니제르 남부 마라디에 있는 한 교회와 목회자의 차량을 방화하기도 했다. 니제르는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의 종교분쟁을 겪었다. 니제르는 또한 말리, 나이지리아, 부르키나 파소로부터 유입되는 이슬람 급진적인 폭력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

키르기즈스탄(Kirgizstan)

2018년 10월 무슬림으로 돌아오라는 무슬림 청년들의 요청을 거부하던 엘도스(Eldos)는 이들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다.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그와 그의 가족은 신변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신앙인이던 그의 누이는 강제 이혼을 당했고 남편으로부터 살해위협을 받았다. 지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오던 엘도스는 이제 안전한 나라로 이주했으며, 장기 체류 허가를 신청했다. 그는 신체 일부의 감각을 여전히 느끼지 못한다. 또한 치아가 많이 부러져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아직 심리적, 육체적 치료가 필요하며 회복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엘도스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삶과 신앙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박해 받는 여성 캠페인 사역

사역 1

꺼지지 않는 희망 여성사역은 어떻게 회복하고 치유하는가?

딸이 납치된다면 모든 부모에게 최악의 악몽이 될 것이다. 이집트 시골에서는 기독교 신자인 여성들을 노리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학대는 필연으로 보인다. 2018년 어느 이집트의 시골에서 매기(Maggie)라는 스물한 살의 딸과 함께 사는 여성은 딸이 가게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딸은 돌아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다시는 전화하지마! 딸은 집에 못 돌아가!”라는 흉악한 목소리만 들려왔다. 매기는 2018년에 사라진 많은 여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것이다.

납치

여성사역자 멜리사(Melissa)는 “과격파 무슬림들은 기독교 여성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들을 납치하기 위해 사회 조직을 동원하며, 이슬람의 결혼을 강요한다”고 증언한다. 납치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사랑을 빙자하여 자존감이 낮은 여성들이나 가족의 유대감이 약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친근한 관계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납치를 자행한다는 것이다.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2018년에 1,250개의 여성 그룹에서 18,900명의 크리스천 이집트 여성들에서 납치

예방은 물론, 이슬람 문화에서 여성 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손쉬운 먹잇감이 아니라 스스로를 변호하고 방어하는 강한 여성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

매기의 경우 납치된 5일 동안 완전히 얼굴을 가린 여성들로부터 이슬람으로 개종하라는 협박을 받았다. 이것은 믿음의 시험과 연단이었지만 매기는 유혹을 이기고 견뎠다. 그럼에도 악한 영은 “너는 버려졌고, 아무도 널 찾지 않을 거야”라고 계속 속삭였다. 하지만 매기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며 견디며 싸워나갔다.

치유

한 지역교회는 매기의 귀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다. 결국 7일 동안의 기도와 강력한 탄원은 기적을 일으켰다. 매기는 집으로 돌아왔고 가족의 품에 다시 안겼다. 그럼에도 아직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며 회복하는 데에 또한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매기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저는 집에서 혼자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매우 무서웠습

니다. 심지어 교회에 가는 것도 부끄러웠고, 제 자신이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습니다.”

매기의 치유를 위한 그룹의 리더 로라(Lora)는 그룹의 동료들과 함께 매기를 규칙적으로 방문했고, 납치 이후의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해주었다. 그룹의 동료들은 함께 기도해주었고, 매기의 회복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주었다. 매기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제가 힘들 때, 그들은 정말로 제 편에 서주었어요. 제가 희망을 회복하고, 저의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도움을 주었어요. 또한 깊은 수치감이 떠나가도록 도와주었어요. 저의 자존감, 제 삶에 대한 가치와 만족감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저는 로라와 함께해준 그룹의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매기의 경우처럼, 수십만 명의 이집트 시골에 사는 기독교 여성들이 이러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슬람의 문화 속에서 이러한 납치와 폭력이 처벌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매기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정의롭지 못한 일로 인해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어둠 속에서 한줄기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성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있으며, 그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슬픔을 가진 여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서 그의 빛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사역 2

인도네시아 여성 리더 세우기



새신자 그룹을 지도할 리더를 찾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새신자 그룹의 리더들은 관용적 인격을 소유하고, 성격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픈도어는 최근에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 가운데 새신자 그룹을 이끌 여성 지도자를 발견하고 있다. 라이사(Raisa)는 인도네시아의 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술에 빠져 있었고 어머니를 종종 구타하면서 라이사는 자신에 대한 건전한 자아상을 갖지 못하며 성장했다. 부모가 롤모델이 되지 못하면서 무슬림인 삼촌의 신앙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핵심에 관한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었고 자신의 원래 신앙으로 돌아왔다. 라이사는 규칙적으로 새신자들이 모이는 제자훈련에 참석하고 있다. 그녀는 이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세하게 배우면서, 부모님을 용서하고, 타인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고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면의 상처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다. 하지만 제자훈련에 참가하고 성경의 말씀을 배우면서 새로운 자아상이 생기며, 자신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

갔다. 지금은 유치원에서 간접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오픈도어는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을 위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한 번 모이면 대략 3시간 정도 진행되고, 15명에서 20명의 신자들이 참여하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주 동안의 신앙과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배운다.

이슬람 문화에서 새신자들은 서로에게 의지할 공동체가 필요하며, 동일한 배경을 가진 신자들과 함께 신앙이 성장하며 복음을 자신의 공동체에 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강력한 유대감이 존재하지 못하면, 새신자들은 쉽게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 이전의 종교로 돌아갈 수 있다. 해마다 800여 명의 새신자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배우고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새신자 제자훈련의 단기적인 목표는 복음전파와 선교 사역 그리고 잠재적 리더들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장



기적으로 오픈도어는 새신자들과 사역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성 사역에 리더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라이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여성 사역자로 세워져 가고 있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사역 캠페인 후원: 신한은행 100-027-219169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2019 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북한 캠페인

북한에 복음과 떡을 보낼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어린이 및 청소년 캠페인

박해의 희생양 어린이와 청소년을 돕습니다.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예금주: 김성태(한국오픈도어선교회)

“중동에 희망을”(Hope 4 ME) 캠페인

시리아와 이라크의 기독교 공동체를 재건합니다.
우리은행 1005-701-884976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오픈도어 사무실을 후원해주세요



선교회는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연락처: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지 역: 서울 및 인근지역 기 간: 5년



선교회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업무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금액: 700백만원 은 행: 신한은행
계 좌: 100-027-607588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박해퍼즐 8월호



		1			2		
4					3		
			6				
5						9	
				8		10	
	7						

● 가로열쇠

- 2019년 기독교 박해순위 49위. 중동에 위치한 이곳은 서안 지구(West Bank)와 가자 지구(Gaza Strip)로 나뉘며, 전체 인구 5백만명 중 기독교 인구는 약 4만6천명(1%)에 해당된다. 주요 종교는 이슬람교이며,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박해로 인해 기독교인 수가 계속 줄고 있다.
- '강하다'는 뜻. 헤브론 인근 지역으로 상수리나무 숲으로 유명하며,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천막을 치고 거주했다. 훗날 아내 사라의 장지로 구입하여 족장들의 묘소가 된 막벨라 굴이 있다.
- 제 고장을 떠나 여행 중이거나 먼 곳에 임시로 가 있는 사람. 성경에서는 '이방인', '거류민', '타국인' 등으로 불린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로 지냈던 것을 기억하라 명하신다.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살피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 '세상 모든 왕 가운데 가장 높으신 왕'.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쓸 정도로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땅의 그 어떤 왕이나 황제보다 더 위엄 있고 절대적인 최고의 권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라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
-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자'를 가리키며, 성경에서는 '셀롯' 또는 '셀롯인'으로 표현되고 있다. (초성힌트 : ○스드)
- 바사 왕 아닥사스다 때에 술 말은 관원장을 지낸 유다 포로 출신. 아닥사스다 왕 20년 되던 해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가 황폐해진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울며, 금식 기도한 끝에 바사 왕의 허락을 받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인물이다.
- '떠나다'(go away), '버리고 가다'(desert). 믿음을 저버리고 변절함을 뜻한다.

● 세로열쇠

- 곡물을 타작하는 장소. 성경에서 비유적으로는 풍요로움, 심판, 바벨론 제국의 멸망, 이스라엘의 회복 등을 상징하기도 한다.
- '기쁨', '즐거움'이란 뜻.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당시 수리아의 군대장관. 이스라엘 출신 여종의 말을 듣고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 사마리아에 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고 나음을 입었다.
-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상) 다윗 왕의 죽음에서부터 왕국 분열을 거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20여 년 역사를, (하)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의 통치에서부터 남북 왕국의 멸망과 포로기까지 300여 년 역사로 구분, 기록하고 있다.
- 넓고 거친 들판. 인적이 없는 황무지. 사막. 이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방랑한 곳이다. 또한, 세례 요한은 유대 땅 이곳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며, 천국을 전파했다.
- 배우자, 특히 '아내'를 가리키는 성경적 표현이다. 이 단어는 아담을 위해 지어진 하와에게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보	코	하	람			오
아				바	르	실
스	리	랑	카			참
	위			요	한	복
	야			게		
나	단			벳	바	게
실						데
인						스

■ 7월호 당첨자 ■

고*영 (4162), 박*은 (0740), 정*주 (7310)님, 축하합니다.

정답과 함께 성함,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신 후 아래 E-mail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E-mail : odsk@opendoors.or.kr (마감 : 2019년 8월 10일)

2019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 국내 참가자 모집

취지: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전세계 후원자들이 함께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행사

일 시: 2019년 10월 9-10일(1박 2일)

장 소: 경기도 연천군

종 목: 산악 마라톤 10km, 21km, 42km
산악 하이킹 10km, 21km, 42km, 68km
산악 자전거 21km, 42km, 63km, 120km

참가비: +30만원(체류비용 + 선교헌금)

참가비 모금: 가족과 친구 혹은 동료 및 교회를 통해 대회 취지를 설명하고
매월 소액을 모금

참가인원: 해외 100명(확정) + 국내 50명 모집 중

자원봉사자 모집: 인원 20명(영어 가능자 우대), 행사 기간 체류 비용 지원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여성 사역 캠페인

가족의 상실과 가난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폭력과 싸우는
박해받는 전 세계 기독교 여성들과 함께해주세요.

여성 사역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여성사역자 훈련

치유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여성 사역에 대한 목회자 훈련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희망의 선물 2019 캠페인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19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길 바라려 ...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국가의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4. 정기후원으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금액: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비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은행:	은행계좌: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5일 혹은 <input type="checkbox"/> 25일

작성하신 후에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전화: 010-7548-3171)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